금융 · 건설 외교 등 정부 지원 가시적 성과

- 해외건설' 재부상 에 한 몫, 글로벌 엔지니어 육성 등 남은 과제도 많아 -

2005년은 해외건설의 재부상과 더불어 정부의 지원 정책도 나름대로 한 걸음 진보한한해였다. 충분하지는않지만, 그간해외건설 활성화를위하여 지속적으로요구되어온지원정책들이일부나마실현의실마리를찾은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한 해외건설 수주는 11월 15일 현재 92억 2,600만 달러를 기록해 연초에 목표로 하였던 85억 달러를 이미넘어섰으며, 100억달러달성을목표로 순항 중이다. 2004년 74억 9,800만 달러를 기록한것에비하면벌써 23.0%나증가하였으니기대이상의성과라아니할수없다.

정부 지원 대책

금년도 해외건설이 이처럼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대외적으로 유가 상승에따라중동지역에서발주가증대하였다는 이유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국내적인 요인의 영향이 더 컸다고 볼 수 있다. 2004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시행된 국내부동산투기억제정책들이건설업체들로 하여금 해외 시장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도록만들었기때문이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의 급격한 하락에 따른 급작스러운 건설 경기 침체를 우려한 정부의적극적인대응도한몫을하였다. 정부는해외건설활성화를위한범정부차원의지원대책마련을위해지난 2004년 12월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및외교통상부의5개부처를총망라하여' 해외플랜트 · 건설 · 정보인프라참여확대방안'을마련하고, 이어2005년2월기본방안에따른세부추진과제를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① 지역별 · 사업별 진출 확대, ②금융지원강화, ③지원체계구축, ④기업 역량 제고, ⑤국내 여유 자금 참여 확대 등5개과제가선정되었으며, 상기5개과제의실현을위해총 43건의세부과제가선정되었다. 이중가장중점적으로다루어진과제는 단연 금융 지원의 강화로 여기에는 수출입은행, EDCF, 수출보험등의 업무와 관련하여19개의세부과제가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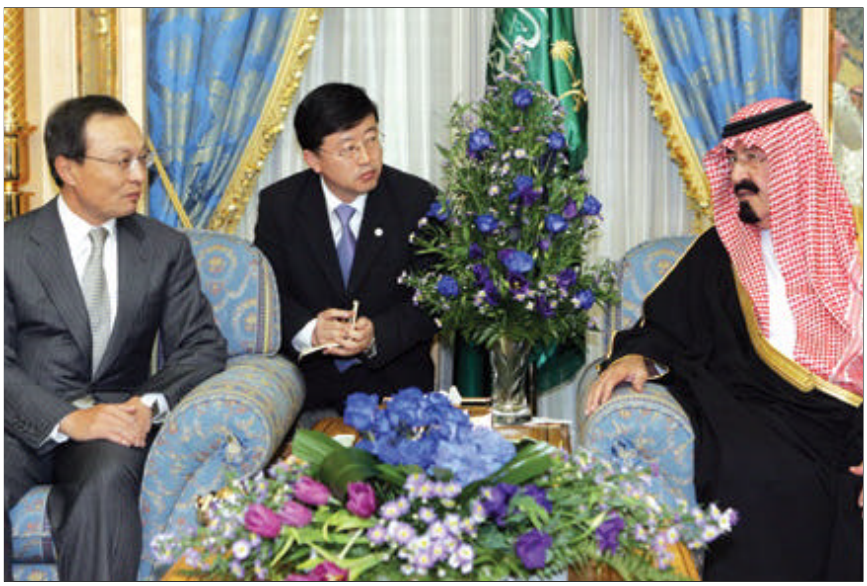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지원 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로다루어져해외프로젝트에대한정부투자기관과의공동참여방안, 사업타당성및시장척기금지원확대방안, 발주자복보증요구에의 대응 방안 등과 관련하여 17개 과제가선정되었다.

이외에엔지니어링기술력제고, 지역및 수주전문인력양성등기업역량제고관련 과제 7건, 자산담보부증권및 수출입금융채권 발행 등 국내 여유 자금 참여 확대 관련 과제 4건, 지역별 · 사업별 진출 확대 전략 마련, 수주지원대표단파견등지역별 · 사업별 진출 확대 과련 과제 2건이 선정되었다. 이후 각 과제에 대해 과제별 추진 계획 및 세부 일정을 수립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였으며, 과제별로 담당 부처와 담당자를지정하여해당과제를책임지고추진하도록하였다.

가시적인 성과 보여

연초에이러한구체적인목표를수립하고

금년 들어큰 폭으로증가한 해외건설 수주는 11월 중순현재 92억 달러 수준을 기록함으로써 연초 목표를 이미 넘어섰다. 사진은건설외교에나선이해찬국무총리.



그간 부처별로 노력을 경주한 결과 일부에 대해서는가시적인성과를보이고있다.

먼저, 업체들이가장목말라하는금융지원부분을살펴보자. 중소기업의 지원을 확대하는한편수출입은행의프로젝트회사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는 방안들이 강구되었다. 구체적으로는첫째, 2003년부터건설교통부가 해외건설협회에위임하여 지원하고 있는 시장 개척 자금의경우 2005년 2월을 기점으로중소기업을우대하여종전에소요 자금의 50%까지 지원되던 것을 소요 자금의 60%까지지원하도록 하였다. 둘째, tied loan으로 운영되어 국내 업체들의 수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EDCF의 지원 조건을개선하여2005년1월부터기존금리를 1%p 인하하였다. 셋째, 한국수출입은행의 지원을확대하여2005년4월자본금5,000억원을증액하였으며, 5월에는여신한도를 확대하였다. 이에따라일반기업의경우종전에 자기 자본의 20%까지였던 것이 40%까지 확대되었으며, 계열 기업은 25%에서 50%로 확대되었다. 넷째, 해외건설환경의 변화를감안하여2005년2월부터수출입은행의 프로젝트 회사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였다.

다음으로, 지역별 · 사업별 진출 확대의 일환으로시장조사및수주지원을위한대표단이 파견되는 등 적극적인 건설 외교에 나섰다. 올5월과6월에는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쿠웨이트의중동 3개국과 멕시코, 브라질, 칠레 등 중남미에 민관 합동 시장 조사단이 파견되었다. 9월에는 고위급 수주 대표단이파견되어브라질및칠레와MOU를 체결하였고,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도 민관합동시장조사단이파견되었다. 특히, 브라질및칠레와의MOU 체결은지난3월 IDB(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에의 정식 회원 가입과 더불어 중남미진출의교두보를확보하였다는데큰의의가 있다. 이어10월과 11월에는 국무총리 등이이란,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중동지역의순방을통해협력을독려하였다.

올해는 정부가 해외건설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지원방안을마련하고실천한해로평가되고있다.

이 외에 9월에는 그간 문제시되어 온 해외건설의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해외건설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구축, 업계에 제공하였다. 12월에는해외건설금융활성화를 위해 해외건설 사모 펀드(PEF), 해외건설 인프라펀드설립을위한방안을강구할예정이다.

남은 과제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5년은 1970년대말중동붐이후정부가해외건설의중요성을재인식하여구체적이고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 해로 평가된다. 특히, 범부처차원의지원방안모색은담당 행정부처가아닌업계의시각에서장애요인의 해소를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있다.

그러나, 여전히해소되지않고남겨진과제들도 많다. 기업역량의제고는 근본적으로기업자신들이해결해야할문제라하더라도 해외건설에 필수적인 수주 정보 제공을위한현지네트워크의확보, 국내기업들의 해외 수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EDCF 자금의 확대, 현재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주종을 이루는 플랜트 분야에서 동반 진출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국내 기자재 산업의발전전략의 제시, 글로벌스탠더드에걸맞는고급엔지니어를육성할수있는 교육 · 훈련체계의 정비등풀어야할과제가산적하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이모든것을가능하게 하는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가장우선적으로해결되어야할난제인것같다. 금년2월확정된세부추진과제가운데 국내여유자금참여확대와관련된과제인 이익참가부채권발행지원, 자산담보부증권 발행지원, 수출입금융채권발행, 수출금융 관련 간접 투자 상품 개발 검토 등의 실행 여부에유독관심이가는것은이런이유때문일 것이다. 아무쪼록 정부의 초안대로 모든 과제가 무리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해외건설을하고자하는모든기업들에게그 효과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기를기대해본다.

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mhkim@cerik.re.kr